



88060161

KOREAN A1 – HIGHER LEVEL – PAPER 1
CORÉEN A1 – NIVEAU SUPÉRIEUR – ÉPREUVE 1
COREANO A1 – NIVEL SUPERIOR – PRUEBA 1

Monday 20 November 2006 (afternoon)

Lundi 20 novembre 2006 (après-midi)

Lunes 20 de noviembre de 2006 (tarde)

2 hours / 2 heures / 2 horas

INSTRUCTIONS TO CANDIDATES

- Do not open this examination paper until instructed to do so.
- Write a commentary on one passage only.

INSTRUCTIONS DESTINÉES AUX CANDIDATS

- N'ouvrez pas cette épreuve avant d'y être autorisé(e).
- Rédigez un commentaire sur un seul des passages.

INSTRUCCIONES PARA LOS ALUMNOS

- No abra esta prueba hasta que se lo autoricen.
- Escriba un comentario sobre un solo fragmento.

다음 중 하나를 골라 해설하시오.

1. (a)

감자 먹는 사람들

- 내가 왜 윤희 언니에게 이런 편지를 쓰기 시작하는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하필 아버지의 병실에서요. 한때 나는 내가 봐도 마치 편지를 쓰기 위해 살고 있는 것처럼 참, 많은 편지를 썼지요. 이 도시로 처음 나왔을 때 더욱 그랬습니다, 창밖은 낮설고 어디에도 마음 붙일 데가 없어서 내 태생지에 두고 온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지요. 이제는 나를 잊은 사람들에게 부쳤을 그 많은
- 5 편지들엔 무슨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그 때의 내겐 편지 쓰기란 내 몸의 일부 같았어요. 그랬는데 노래하는 사람이 되고부터 나는 사적이건 공적이건 편지를 못 쓰게 되었습니다. 아니 쓸 수가 없었다고 해야겠지요. 어쩌다가 쓰게 된다고 해도 부칠 수가 없었어요. 노래하는 사람이 되고 난 후에는 편지를 써놓고 다시 읽어보면 이상하게 이게 아닌데, 싶었어요. 노래 같지 않은 글이 거짓말 같았다고나 할까요. 매번 뭔가 지나치다고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노래하는 사람이
- 10 되기 전엔 그토록 자연스럽던 편지 쓰기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어렵게 된 까닭은? 지금도 이 편지를 윤희 언니에게 부치게 될 것 같진 않습니다. 노래라면 얼마든지 윤희 언니 앞에서 부를 수가 있을 텐데.
- 빗줄기가 약해졌습니다. 집에 가야겠습니다.
- 어머니는 시골집에서 지금 뭘 하고 계실까요? 땅콩을 캐고 계실까, 아니면 이제 다 시든 고춧대를
- 15 뽑고 계실까? 저 비가 그 마을에도 내린다면 아마도 뒷산의 상수리나무, 떡갈나무 잎새들을 우수수 떨어뜨리고 있겠지요. 밤나무 밑엔 이제는 아무도 줍지 않는 밤이 여기저기 수북이 흩어져 쌓여 있을 테고, 밤이면 뒤결의 감나무 잎새들이 우우—거리며 앞마당으로 쓸려나와 여기저기를 해매고 다닐 것입니다. 집을 갖지 못한 사람들처럼요. 어머니는 아버지 없이 추수를 하고 계시겠지. 벼를 베고 말리고 뒤집고 탈곡(脫穀)하고. 그 지방의 병원에서 이 도시의 병원으로 아버지가 옮겨오실 때
- 20 따라나서려는 어머니께 아버지께 크게 역정을 내셨지요. 논밭의 가을일을 내버려 둘 참이냐고요. 봄 내내 씨 뿌려서 여름 내내 한 가지 것에 여든여덟 번씩 손을 갖다 대고 인자 겨우 열매를 맺었는데 그것들 안 거두고 식구들 죄다 병원에만 있을 거냐구요. 결국 어머니 눈물을 머금고 뒤처지셨습니다. 자식을 여섯이나 장성시켜 왔지만 우리들 중 누구도 추수를 어떻게 하는지를 모릅니다. 설령 할 줄 안다고 해도 이 도시의 건물 안 책상에서 컴퓨터를 치고 전화를 받고 공문을
- 25 보내고 받으며 사느라 여러 날 계속해야 하는 추수 기간만큼 자리를 비울 수도 없습니다. 칠 년 만에 재발한 아버지의 병에 가장 놀란 분은 어머니인데 우린 부친이 쓰러지기 이틀 전에 술을 마셨다는 고모님의 말씀을 듣고 모두들 어머니를 쳐다봤지요. 마치 부친의 병을 재발시킨 게 어머니나 된다는 듯이요. 설마 아버지의 병이 오로지 이틀 전에 마신 술 때문이기가
- 30 하겠습니까마는, 어디다 대고 원망할 데가 없는 우리들은 어머니이기 때문에 괜히 화를 내는 거지요. 그래요. 어머니이기 때문에. 여섯 명이 돌아가면서 한 마디씩만 해도 여섯 마디. 그 원망 속엔 부친의 건강에 대한 염려만 실려 있는 건 아니지요.
- 이 도시의 일상 속에 쌓여 있는 서류, 혹은 공적인 일로 만나야 할 사람들과의 일들이 중환자실에 며칠이고 누워 계시는 부친으로 인해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한 것에 대한 석연찮음이 괜한
- 35 어머니에게 쏟아지는 거지요. 왜 술을 마시도록 내버려두세요? 술이 아버지에게 얼마나 나쁜지 뻔히 다 아시면서요. 최근에 집 짓는 일로 부친이 계속 어머니와 의견 충돌을 일으켰다는 말을 들으면, 평소에 흔쾌히 집을 새로 짓겠다는 부친의 편을 들지도 않았으면서 또 여섯 명이 어머니께 대들지요. 어머니가 자꾸 아버지 심중을 건드리시니깐 화를 끓이셔서 쓰러지신 거예요.
- 드디어 어머니께서,
- 40 "너희들은 지난 칠 년을 아버지 병을 잊고 살았겠지마는 나는 니 아비가 숨소리만 이상하게 내도 가슴이 철렁한 세월이었다야,"
- 하시며 눈물을 보이고 마실 때 모두들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때도 들었던 것 같네요. 모퉁이를 돌아선 기차가 철거덕철거덕 마을을 가로질러가는 강철바퀴 소리를.
- 칠년 전 한 해에 네 번을 혼절하신 아버지를 혼자 병원에 입원시킨 경험이 있는 어머니는 그 때부터 아버지와 단둘이서 그 집에서 밤을 맞는 걸 두려워하셨지요. 한번도 도시에 살아본 적이 없지만, 그
- 45 때부터 어머니 이따금 이 도시로 터전을 옮겨오고 싶다는 희망을 내 보이곤 하셨습니다. 이 도시로가 아니라 이 도시를 떠날 수 없는 자식들 곁으로겠지요.
- 밤에 니 아비의 숨소리가 언덕 올라가드끼 가팔라지면 니 아비 임종을 나 혼자 지키야 허는 거 아난가 싶은 게 무섭고 싫어야.

신경숙, [창작과 비평] 1996

1. (b)

훈련

팬티 끈이 늘어나
입을 수가 없다. 불편하다.
내 손으로 끈을 갈 재간이 없다.
제 딸더러도 끈을
5 갈아 달라기가 거북하다.
불편하다. 이제까지
불편을 도맡았던 아내가
죽었다. 아내는
요 몇 해 동안, 나더러
10 설거지도 하라 하고, 집앞
길을 쓸라고도 하였다.
말하자면 미리 연습을 시키는
것이였다. 그런데 성가시게 그러는 줄만
여기고 있었다. 빨래를 하고는
15 나더러 짜 달라고 하였다.
꽃에 물을 주고, 나중에는
반찬도 만들어 보고
국도 끓여 보라고 했다.
그러나 반찬도 국도
20 만들어 보지는 못하였다.
아내는 벌써 앞을
내다 보고 있었다. 팬티
끈이 늘어나 불편할 것도
불편하면서도 끄끙대고 있을
25 남편의 고충도.

박남수 [그리고 그 이후], 1993